

01 교회소식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 2부를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신년기도제목 시리즈 3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온 영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이뤄야 한다.

03 기획특집

변화와 결단을 위한 조언

영의 마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분야를 알아본다.

04 간증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따스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고질병까지 치료된 박재홍 성도와 눈과 귀의 질병을 치료받은 일본 이창미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669호 2015년 1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십자가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찬양해요”

매주 금요철야예배 2부 인도자 및 예능팀과 함께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0~11)

아름다운 성전

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충분히 드러낼 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인 참된 이유는 대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성전,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아, 예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스테반, 발람,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에스더, 롯 등과 같이 인간 경작을 통해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분들이 한데 모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섬기고 사랑하되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모두가 화평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성도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전이 대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2.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의 곱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장점을 붙잡고 꾸준한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짐으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불

붙는 사모함으로,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녹처럼 범사에 선(善) 쌓기를 즐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더 갖기보다 양보하는 편을 택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그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좌하면 나는 기꺼이 우할 수 있는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처리를 사심 없이 정직하게 해 아무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한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온유한 심령이 되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주를 향한 사랑이 날로 승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것처럼 내게도 그런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권능을 행하고, 많은 계시를 받는다 해도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린 것처럼 나도 그리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이나 어느 누구에게 멸시전대를 받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상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내게도 그런 선한 마음을 주사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맞춰드렸다 하십시오. 이처럼 나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꼭 맞게 섬길 수 있는 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명 다

해 이룬 것처럼 나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 다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어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도 흘려 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고 지켰습니다. 나도 이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편안한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할 정도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도리를 좇는 선(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은 물론 내가 희생해야 한다 해도 도리를 좇는 지극히 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 수 있기를, 또한 요셉처럼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믿을 수 있기를, 다윗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즐길 수 있기를, 사무엘처럼 영혼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닮기 위해 사모함으로 이러한 기도를 계속 쌓아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이룬 성도가 많이 나오수록 대성전 건축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영을 향한, 온 영을 향한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며 온 영을 이루기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전 성도 세 번째 기도제목인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천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장차 우리가 지을 ‘대성전’입니다.

1. 대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인 이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와 목자에게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 성에 이끌어 들이려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의 규모와 식양에 대해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대성전 건축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영의 사람’이 나오는 흐름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성전이 건축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영혼이 많이 나왔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 주신 대성전의 식양이 새 예루살렘 성과 닮은 점이 많습니. 동시에 대성전의 투시도는 면류관 모양이기도 하지요. 이는 대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됐나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축복의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목표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함으로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기 바란다.

첫째,
목표를 향해 결단했다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장 아끼던 것을 내려놓고
가장 힘들며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급격한 변화도 좋지만
변개함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의식은 이와 다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해도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신앙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영의 마음을 이루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것이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목적의식은 내 마음에서부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야 하는 이유 등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 생겼을 때 목적 의식이 비로소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깊이 깨우쳐질수록 신속히 그 사랑의 열매로 나와야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생겨서 짧은 시간에도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 십리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 곧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깨우쳐져야 참된 결단을 통해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그랬나보다.'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니 결단했다고 하지만 참된 결단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



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고향을 등쳐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과 가족을 뒤로 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겹옷을 내어 던졌다.

이처럼 목표를 향해 결단한 사람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막 10:29-30).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살펴야 한다. 여전히 TV, 인터넷, 오락을 즐기고,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다. 가장 버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우러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 성결도 마찬가지이다. 영의 흐름 가운데 분위기를 좇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때 순종할 수 있고, 효율도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될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개하지 않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다.

만일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마음의 할례도 할 수 없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한다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한 사람이라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면 변개없이 행하기 때문이다. 기도도, 말씀 무장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변화를 이뤄 갈 수 있다.

이때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변개없이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있는 변개함의 속성을 뽑아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 간다면 그 행함 하나하나가 쌓여 변개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분야, 가장 놓기 어려웠던 분야라도 하나하나 시작해 가되 변개없이 나아가간다면 참된 결단이 돼 온전한 열매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결단 속에 더욱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p>01 JANUARY 2015.1.18~1.24</p>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 31-35 ■ 의와 인과 신 1 ■ 육체의 결여 9-10 ■ 3차 영혼육 3-7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믿음을 척량하시니 8-12 ■ 요한계시록 강해 53-54 ■ 사랑 1-3 ■ 예언 4 ■ 선 1 ■ 순전 1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자께서 채워주시는 공의 (이수진 목사) ■ 말장이 2 (이미영 목사) ■ 기도 6 / 영의 세계 27 (이희선 목사)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6 / 사랑과 오해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6 (김수정 목사) ■ 육체의 결여 3 (김승신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1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3 ■ English 4 ■ 플로리스트 6 ■ 옛날 옛적에 12 ■ 흥겨운 소리 1 ■ 모두 드러요 21 ■ 즐거운 요리 23 ■ 창조와 과학 3 ■ 창조와 과학 3 ■ 만민 지킴이 4 ■ 내 마음의 찬양 3 ■ 뷰티풀 라이프 1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 24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p>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	--	--	---	--

“30년 된 무릎 연골 및 인대 파열이 치료되다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재홍 성도 (47세, 춘천만민교회)

제 나이 열여덟 살 때, 축구선수로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던 제게 무리한 연습과 경기 중 반복되는 심한 무릎 부상은 결국 축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1993년, 스물세 살에 휴대폰 유통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 순수익이 몇 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20대와 30대를 호화롭게 살았지요. 세상은 마치 나를 위해 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저는 10억 원이 넘는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2008년, 마흔 살에 저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소위 ‘빛잔치’라 할 걸 하고 나니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됐지요. 친구들도 손가락질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외면하며 쳐다보며 저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무릎도 망가졌는데 우울증도 생겨 조울증으로까지 발전했지요.

2013년 7월 어느 날, 저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살아보자고 결심했지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막노동뿐이었지요.

3일 정도 일하면 하루, 이틀을 드러누워서 끄끙 앓고 어떤 날은 일을 하다가도 무릎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번기에 걸터 앉아 문고리를 붙잡고 고통을 참아 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 3~4시쯤 되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깨기를 반복했으며 다리 근육을 양쪽에서 비틀어 쥐어짜고 그 중간의 무릎은 마치 여러 사람이 송곳으로 동시에 찢러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 지난해 12월 22일, 춘천만민교회 ‘성령충만기도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희선 목사에게 기도받은 뒤, 즉시 통증 없이 앓고 일어설 수 있게 돼 감격스러운 눈물의 간증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2014년 7월, 함께 일하던 전호송 집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듣거나 편지를 주고 트집을 잡기도 했지요. 그러던 12월 22일 아침, 그날따라 유난히 아파서 자리에 누워 끄끙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호송 집사님에게 저녁 7시에 기도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지요. 그런데 그날은 제 입에서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전호송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온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

고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시는데, 순간 큰 불기둥 같은 것이 보이더니 뜨거운 기운이 제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감사 이희선 목사님이셨지요.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아주 즐겁고 기뻐하며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위해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이희선 목사가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행 19:11~12)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섰고 제 순서가 됐지만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뒤 주변에서 제게 앓았다 일어났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 왜 이러지?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이게 왜 되지?”라는 말이 나왔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회 후 저는 감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3층에서 1층까지 마치 뛰듯이 내려왔는데, 무릎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놀라운 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와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만을 생각하던 저를 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고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2014년 1월경, 갑자기 시야에 작은 벌레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망막에 구멍이 생겨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된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지요. 7월 말에는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고 색상 구별이 안 돼 컴퓨터 작업은 물론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킴받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수 있도록 생명 다해 이끄시는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감동이 됐고, 주의 종으로서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며 통회자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2014년 8월 1일,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 갔을 때 당회장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5년 전에도 당회장의 기도로 왼쪽 귀의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았습니다. 처음 성결의 복음을 들을 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일본에 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개척했지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힘차게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창미 목사
(60세, 일본 오사카만민교회)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중앙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골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중앙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중앙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중앙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명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71,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9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영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